

제4절 활기 넘치는 지역개발 촉진

1. 신성장 거점 육성
2.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 추진
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 확충
4. 열린 토지행정 구현

제4절 활기 넘치는 지역개발 촉진

1. 신성장 거점 육성

1-1.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가.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2007년 11월 나주시 금천면 일원 혁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협력하여 조성하는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로 개발면적은 전북 혁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크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 6. 24.)상 18개 기관이었으나, 저작권심의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저작권위원회로 통합(2009. 7월)된 후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정부소속기관 3개, 공기업은 1개, 준정부기관 9개, 기타 공공기관 3개 등 총 16개기관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여수시로 개별이전 했다.

2013년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2015년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14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총 16개 기관이 이전을 마무리 하게 된다.

<표2-155>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구분	소속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관수	3개	1개	9개	3개
기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전파연구원 •농식품 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전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전KDN •한전KP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진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이건설, 이전지원팀장 박석현, 담당자 이영식

나.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우리 도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입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17,952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6,07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었다.

혁신도시 내 자족형 교육거점조성을 위해 유치원 4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등 14개교가 설립될 계획이며, 이 중 5개교는 개교하여 입학 또는 전학하게 되는 이전기관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건립예정인 어린이집 25개소 중 10개소가 건립되어 운영 중이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 도시진입도로는 총 4개 노선 7.96km으며, 사업비 2,204억 원이 투입 되고 있다. 현재까지 4개 노선 중 1개 노선 5.39km(나주역~혁신도시)은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2013년 개통되었으며, 시행사 구간인 2개 노선 1.59km(서측, 동측)도 2015년에 완공되어 총 3개 노선이 개통되었다. 나머지 1개 노선 0.98km(북측~국도 1호선)는 2016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혁신도시진입도로는 호남광역권 내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혁신도시의 역할 및 기능을 지역적 한계를 넘어 확장시킴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의 중심도시로써 성장하도록 주도할 것이다.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련 주요 진입도로 노선 위치도 >

구분	노 선 명	연장(km)	개통(예정)
가	나주역~혁신도시 서측	5.39	개통
나	사업지 서측(신천IC)~고동리	0.98	개통
다	사업지 북측~국도1호선	0.98	2016년 말 예정
라	사업지 동측~국지도55호선	0.61	개통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 주요 악취원인으로 주목 받아온 호혜원의 축산폐업을 2015년도에 완료함에 따라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혁신도시 인근 축사에 대해서도 미생물 발효제 투입 등 다양한 악취 저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추진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이건섭, 이전지원팀장 박석현, 담당자 이영식, 시설지원팀장 임광건, 담당자 이군행

다. 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빛가람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하여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당초 기업이 필요한 면적에 비해 클러스터 용지가 대규모 필지형태로 조성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의 소필지화를 추진하여 입주희망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총 84개 블록, 415천㎡(전체 면적의 5.6%)로 조성되었으며,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여 에너지클러스터, 농생명클러스터, 정보통신클러스터, 문화예술클러스터로 구성하였다.

투자의향 기업 및 이전완료 기관과 연계하여 분야별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5년말 기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65%인 40필지, 270천㎡가 분양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에너지클러스터, 농생명클러스터, 정보통신 클러스터, 문화예술클러스터 등 4개 기능군간 유기적인 배치를 통해 미래 신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p>에너지산업 클러스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전시시설, 창업인큐베이터 등이 구비된 전문화된 연구기술단지의 개발 및 녹색전력 IT기술의 상용화 기반 구축(Smart-Grid 시범도시 등) ● 광주의 광·LED산업 및 전남의 태양광·해양풍력 발전사업 등 광역경제권 에너지사업과 연계 혁신클러스터 구축
<p>농생명산업 클러스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나주-화순을 중심으로 한 생물산업의 연구개발 및 자원화 기관과 연계 하여 광역클러스터 구축 ● 농식품가공산업육성과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집중지원 및 바이오 의료산업 등 농림 바이오산업 전반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p>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지역내 창업기반 구축 및 한전KDN 등과 연계 에너지 관련 정보통신산업체 육성 ● 국내·외 관련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 체제 구축과 특화분야 연구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소 분원 유치 추진
<p>문화예술산업 클러스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연계 및 전남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수도권 문화콘텐츠 관련업체 이전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프로그램(임대 사무실 제공, 고가시설장비 공동이용) 마련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추진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이건설, 이전지원팀장 박석현, 담당자 박순용

라. 빛가람혁신도시 상생협력 지원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공공기관과 광주시, 전라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해 혁신도시 발전을 논의할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2014년 12월 24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와 산하 실무위원회에서는 교육·교통·의료·문화·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 빛가람 혁신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광주·전남지역 대학·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 지역상생발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5일 지역 발전 분과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지역발전분과위원회는 에너지·농생명·정보통신·문화예술 4개 전문 분과위와 기획총괄위로 구성하였다. 빛가람 혁신도시 개발 효과를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산시켜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가족들을 초청, 남도문화탐방 행사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이전 지역 주민과의 상호 유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28회에 걸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1,700여 명을 초청하여 천연 염색문화 체험, 순천만국가정원 관람, 명승·유적지 답사, 가족단위 체험행사 등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러한 탐방행사는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에게 이전지역에 대한 이해와 일체감 형성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조속한 이전 분위기를 조성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이 우리지역에서 조기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빛가람 페스티벌을 10월에 개최하였다. 빛가람 페스티벌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노력이 반영된 행사로써,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융화의 자리가 되었다.

추진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이건설, 이전지원팀장 박석현, 담당자 이영식, 박선화

1-2.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여건 조성

1)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배경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영암·해남 지역을 동북아시아 관광과 휴양레저의 중심, 세계수준의 명품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하여 낙후된 전남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전남도는 미래 성장거점 개발에 대해 다방면의 논의과정을 거친 후 미국 저드(Jerde)사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J-Project'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확정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해 전경련 중심의 기업도시 개발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2004년 12월에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5년 8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는 명칭으로 시범사업 지정을 받았다.

개발구상과 사업제안에는 약 99.2km²(3천만평) 규모로 영암군과 해남군에 걸쳐있는 영암호·금호호 내부 간척지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부에서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범사업은 1천만평 규모로 축소해 추진하되 초과면적은 단계별로 개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2년 1월 정부는 2009년 6월 개발계획 승인 신청한 부동지구의 개발계획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한 사업성 검증결과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2012년 4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2013년 3월 행정심판 결과 '기각', 2013년 7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개발계획 승인신청 후 시간이 장기 소요되었고 정부의 개발사업 지원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포기’ 결정을 함으로써 결국 개발사업 면적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던 33.9km²(1,026만평) 규모로 확정되었다.

2) 개발 예정지내 공유수면매립지(간척지) 양도·양수

기업도시 개발예정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영산강Ⅲ-1지구(영암호 인근), Ⅲ-2지구(금호호 인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곳으로 매립준공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지(간척지) 상태로 있다. 이에 지구별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매립준공 전 간척지를 확보하고, 매립준공과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전개해야 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와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양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는 우량농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매립목적에 침해받았으므로 조성원가가 아닌 도시개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상태의 농지로 평가하여 양도하고자 했다.

삼포지구는 2010년 6월에 F1부지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협약하고 양도·양수를 진행하였고, 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이견은 있었으나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시설의 준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도시개발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 평가하고 2011년 9월까지 양도·양수를 완료하였다.

구성지구는 2010년 8월에 농어촌공사와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하여 같은 해 12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나 농어촌공사에서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제기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가 반려되었다. 이후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2011년 7월에는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당초의 평가결과대로 양도·양수 하라는 조정을 함으로써 감정평가액을 확정하는데 1년 4개월이 소요되었고 2012년 11월에서야 양도·양수를 완료하였다.

삼호지구는 2010년 7월에 농어촌공사와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를 개시하였으나 평가기준에 대한 당사자(SPC:농어촌공사)간 이견으로 기간 내 평가결과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2011년 8월 평가계약 해지와 함께 평가가 중단 되었다. 이후 농어촌공사와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차를 해소하지 못하다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2013년 12월에야 감정평가를 재개하여 2014년 3월 양도·양수를 완료하였다.

3)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지구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사업부지의 84%가 공유수면매립지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3년 6월 공유수면매립권리 양도·양수를 위한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개정했다. 법률 개정 전에는 적용기준에 대한 원칙이 불명확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현실이용 현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확정했다.

공유수면매립권리 양도·양수 협약상의 잔대금 이행보증을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금액 15%이상의 보증수수료 및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필요)과 잔대금 적용이자 5% 고정금리 적용도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초기 개발사업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에 정책지원을 요청하여 2013년 7월과 9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2차, 3차) 안건으로 상정되어 지급보증보험증권을 20% 계약금과 질권설정으로 대신하고 잔대금에 대한 5%의 고정금리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인 2.6%대의

변동금리로 적용토록 결정하여 공유수면매립권리 양도·양수와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재정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준공 시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등)와 매립권리 양도·양수 비용을 합한 금액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국가로부터 추가 매입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기업도시 개발부지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인근 토지가격으로 양도·양수하였기 때문에 총사업비 정산 시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성이 없어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당초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BH,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 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업성 유무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결과 사업성이 없게 나올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기로 합의했다.

2014년 10월 한국감정원의 매립지 총사업비 정산제 적용에 따른 개발이익 재산정 용역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공유수면매립지는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 현황으로 평가’하는 총사업비 정산특례를 적용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일몰 적용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2015년 6월 개정됐다.

또한 사유지 수용재결 신청요건이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1년 연장가능)로 규정되어 있으나 삼호지구와 구성지구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권리 양도·양수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청기간이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각각 만료되었다. 이에 사유지 수용재결 신청기한 연장을 건의하여 201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기업도시 개발부지가 공유수면매립지로 인해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비 조달 및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있어 조기 토지화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준공 시 기업도시 준공과 중복되는 공정은 생략하고 최소공정만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추진부

기업도시담당관 조재윤, 기획총괄팀장 정명섭, 담당자 이근재

나. 솔라시도 개발사업 지구별 추진계획

1) 구성지구

2006년 6월 1일 자본금 60억원으로 구성지구 SPC인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주)가 설립되었다. 이후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보성건설(주) 549억원, (주)한양 151억원, 광주은행 9억원, 전남개발공사 90억원, 한국관광공사 11억원, 전라남도 90억원 등 총 자본금 900억원에 대한 출자가 마무리 되었다.

구성지구 개발방향은 Joyful City(다양한 레저활동과 흥미롭고 신나는 여가 체험으로 잊지 못 할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도시)로 테마파크, 해양스포츠단지, 남도음식문화촌, 골프빌리지, 비즈니스센터, 시네마타운, 메디컬센터 등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다.

구성지구 개발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월 13일 승인되었고, 2010년 10월 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1개월이 지난 2011년 11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마지막으로 15개 부처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후 구성지구 사업부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척지에 대한 양도·양수 감정평가액이 민사조정을 통하여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2012년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과 12월 27일 최종 고시됨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

2013년 2월 1단계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단지 내 도로

27.5km 개설, 성토 536만^m 등 기반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약 9%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선도사업으로 레저주택 2,000세대와 골프장 36홀을 착공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추진부

기업도시담당관 조재윤, 개발계획팀장 류택열, 담당자 장호훈

2) 상호지구

2006년 9월 17일 14억원의 자본금으로 상호지구 SPC인 서남해안 레저(주)가 설립되었다. 당초 대주주는 금호산업(주)에서 2009년 7월 1일 에이스회원권거래소(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에이스회원권거래소(주) 283억원, 삼환기업(주) 2억원, 한국관광공사 90억원, 전라남도 75억원 등 총 자본금 450억원에 대한 출자를 마무리하였다.

상호지구 개발방향은 Wealthy City(아시아의 베네치아를 꿈꾸는 수려한 수변공간과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의 고품격 풍요 도시)로 허브 테마단지, 마리나, 리조트단지, 골프마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상호지구 개발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0월 8일 승인되었고, 2010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년 5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마지막으로 중앙 15개 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농어촌공사와 간척지 감정평가에 대한 이견으로 2011년 8월에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과 간척지 양도·양수 이행담보 개선 등 걸림돌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2013년 12월 30일 농어촌공사와 SPC간 간척지 양도·양수협약이 체결되었다.

2014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상호지구는 2014년 6월 서측내부 진입도로 1.75km 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7월에는 골프장 27홀, 11월에는 골프장 18홀 공사를 착수함으로써 삼호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으며, 2015년도에는 골프장 2.5개소(45홀) 토공사 및 조형공사를 완료하고, 골프장1개소(18홀)는 2015년 5월 영암군의 최종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준비하고 있어 2016년도에는 골프장 개장을 토대로 활발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한다.

추진부

기업도시담당관 조재윤, 개발계획팀장 류택열, 담당자 정은영

3) 삼포지구

삼포지구 SPC인 KAVO(주)는 MBH가 자본금 75억원을 출자하여 2006년 9월 13일 설립되었다. 이후 2007년 6월 22일 MBH가 27억원을, 2008년 2월 2일 전남개발공사가 40억원을 우선 납입하였고, 2008년 7월 26일 전라남도가 173억원, SK건설(주) 148억원, 전남개발공사 50억원, 신한은행 40억원, 농협중앙회 40억원, 광주은행 7억원을 납입함으로써 총 6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하였다. 2010년 10월 25일 MBH 지분 102억원을 SK건설(주)가 인수한 이후 2012년 5월 18일 SK건설(주) 지분 250억원 중 36억원을 전남개발공사가 인수함으로써 자본금 지분구조가 일단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계인의 스피드 축제인 「F1 Korean Grand Prix」가 열리는 삼포지구 개발방향은 Dynamic City(젊음의 에너지와 역동성을 느끼게 하는 도시)로 F1경주장, 카트장, 자동차튜닝밸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삼포지구 개발의 첫걸음은 F1경주장 건설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2007년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암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득하여 경주장 건설의 근거법을 마련하면서 부터이다. 2009년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하였다.

협의과정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개발계획 승인신청 관련 최소 면적 기준(660만㎡)에 대한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 심의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및 법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건의하여 2009년 9월 29일 동법시행령 부칙에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개발구역을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기존 면적기준의 100분의 50을 개발구역 면적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2009년 3월 4일 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관련 규정상 개발구역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추진이 어려웠으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 2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2010년 4월 8일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2010년 10월 4일 기업도시위원회를 거쳐 2010년 10월 21일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이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F1경주 대회를 선도사업으로 하는 삼포지구 기업도시 개발기반을 마련하였고, 2011년말 전남개발공사 내에 KIC(Korea International Circuit) 사업단을 별도 기구로 발족하여 F1 경주장 관리 운영과 삼포지구 잔여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등 기업도시 조성 및 개발사업과의 연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삼포지구는 F1경주장이 조성된 1단계 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 전체에 대하여 국내외 신규투자자를 발굴하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용역을 시행하고, 2016년 상반기 중에 중앙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은 후 추가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부

기업도시담당관 조재운, 개발지원팀장 정운수, 담당자 임유미

다. 솔라시도 개발사업 기반 조성

1) 안정적인 지가 관리 및 불법행위 사전차단

안정적인 지가 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2004년 8월 11일 1차로 해남군 산이면 전 지역과 화원면 청룡·금평·영호·성산리 지역 105.86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업예정 인근지역인 해남군 해남읍, 화산·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면 일원 457.65km²와 영암군 삼호읍, 미암·서호면 189.1km²까지 2차로 확대 지정하여 총 면적 708.77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과다 지정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거의 없고, 지가 또한 안정적으로 조사되어 도에서는 10회에 걸쳐 해제를 건의하였다.

2009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지정한 영암, 해남군 일원 646.75km²를 해제하였으며, 같은 해 5월 4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중 개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제외한 해남군 11개 법정리 62.02km²를 해제하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있던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부동리,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금호리 6개 법정리에 걸쳐 지정되었던 43.84km²에 대해서도 2011년 8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해제하였다.

또한 기업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 불법토지형질변경, 수목식재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남군과 영암군에서는 1차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간 기업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하였으나, 개발계획 미승인 등으로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년간 2차에 걸쳐 연장 고시하여 월 1회 이상 도, 해남군, 영암군, 시행사가 합동으로 위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 거주해온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해 주택 및 축사 등의 수선행위와 소형관정 개발 등 영농경작행위 등은 해당 군에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8일 삼호지구 개발계획 승인, 2010년 1월 13일 구성지구 개발계획 승인 후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였으나 기업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 해남군 및 시행사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2) 사유지 보상 및 주민 생계안정대책 추진

솔라시도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 및 이주민 현황을 보면 토지는 2,908필지, 면적 33,910천㎡로 이중 국공유지 1.39%, 간척지 84.06%, 사유지 14.55%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주민 현황은 세대수 143 세대에 인구수 334명이다. 이중 구성지구는 2013년 2월 15일 착공으로 2013년 12월에 총 16명으로 『구성지구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분묘 84기를 이장했으며, 201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삼호지구는 2015년도에 국·공유지 2필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우선 사업구간인 골프장 부지를 중심으로 사유지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양보하고, 이주 또는 이직을 하여야 하는 영암·해남지역의 주민생계안정을 위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지역 주민과의 보상관련 마찰을 최소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사업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친환경적이며 실현 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전남발전연구원과 2011년 11월 18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주민생계안정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가경작 주민현황, 농기계 보유현황 등 현황조사 분석, 용역관련 지역여론 주도층 의견청취 및 여론조사(취업희망 등), 기업도시 개발

과정 및 준공 후 주민생계 수요조사, 지역주민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 수요조사, 이주대상자 주거 수요조사, 개발이익분에 대한 지역민의 지역사회 환원 의견수렴 등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수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이주자 택지 위치·조성 규모 등 이주민 이주대책과 간척지 가경작민 등 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생활대책 수립 시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주민의견, 국내 유사사례, 학술 연구 등을 반영한 연구용역 결과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행사에 적극 요구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꾀하고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추진부

기업도시담당관 조재윤, 개발계획팀장 류택열, 담당자 정은영, 장호훈

3) 국지도 49호선 확장

기업도시 건설에 따라 향후 잠재 교통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 국지도 49호선에 대하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도로 높이를 2m로 높이고, 입체교차로 2개소를 설치하고자 지난 2010년 4월 국토해양부에 1,842억원에서 488억원이 증가된 2,330억원으로 사업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11년 5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6차선이 필요하다는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오에 따라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KDI로 하여금 사업타당성 조사를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B/C 1 이하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추후 기업도시 활성화와 교통량 추이를 봐 가면서 도로 확장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4) 기업도시 진입도로개설 추진

정주인구 38천명(15천세대)과 연간 500만 여명의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추가 개설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기 개설된 F1진입도로를 기업도시 진입도로로 간주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시켜 왔다.

하지만 수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하고 설득한 결과 2011년 11월 8일 국회 상임위(문광위)에서 기본조사 용역비 3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되었다.

우리 도는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일념으로 2011년 11월에 2012년도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마침내 2012년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KDI에 의뢰하였으며 2012년 10월에 B/C 1.08이 인정되어 총사업비 2,756억원 중 2013년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하여 2013년 7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2013년 1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2014년에 마무리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등 방문하여 국고보조비율의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2014년도에는 최종 노선 선정과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4년 12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고를 하여 2015년 6월에 기본설계를 심의 설계적격 업체를 선정한 후에 10월까지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2015년 11월에 해남구간 1공구는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영암구간 2공구는 금호산업(주) 컨소시엄을 시공업체로 최종 선정하여 12월 9일 공사를 착공하였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목포·광양간고속도로 및 국도 2호선 서호 IC에서 솔라시도 지구내 지방도 806호선을 잇는 구간으로, 총 길이는 9.9km, 4차로이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36억원(국비 50%, 지방비 등 50%)투입하여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추진부

기업도시담당관 조재윤, 개발계획팀장 류택열, 담당자 최준기

라. 기업도시브랜드 개발 및 홍보 추진

1) 기업도시브랜드 개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세계수준의 명품도시에 걸맞는 도시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3월 개발사업 시행자(SPC)와 협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아우르는 브랜드 개발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4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개발사업의 분석을 통해 ‘역동성, 활력, 조화, 즐거움, 풍요’를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브랜드명을 발굴한 결과 “솔라시도(SolaSeaDo)”로 확정하였다. 브랜드와 연결되는 슬로건을 ‘태양·바다·호수의 삼중주, 월드클래스 휴양레저 도시’로 결정하고 2012년 3월까지 로고를 포함한 기본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태양과 바다를 함께 즐기는 복합 휴양 관광 도시로서 삶의 즐거운 리듬과 에너지, 젊음의 경쾌한 템포 등을 연상시키는 도시명으로 개발되었다.

2) 솔라시도 개발사업 홍보

솔라시도 기업도시 제도개선 및 진입도로 착공을 계기로 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지구별 선도사업 및 튜닝벨리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매체와 국내·외 주요행사 참가를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홍보매체로는 YTN, MBN을 통한 영상광고와 인터넷뉴스 제공 사이트인 '뉴시스' 홈페이지 배너광고, KTX 객실 모니터를 통한 영상 광고, 광주버스터미널 전광판, 광주공항·무안국제공항 라이트박스, 광주 금남지하상가 사각기둥, 제주도 시내버스 외부박스 등 연간 2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 정부청사 옥외전광판 광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홍보 다각화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였다.

국내·외 주요행사로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장흥), 명랑대첩 축제(해남·진도), 남도음식문화큰잔치(담양), 씨티스케이프 부동산 박람회 등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추진부

기업도시담당관 조재윤, 기획총괄팀장 정명섭, 담당자 조선아

마. 삼포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

1)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모터스포츠산업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레저행태의 변화 등 그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공인 1등급 F1 서킷을 활용하여 미래 신 성장산업인 모터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삼포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7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은 2013년 하반기부터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총 4년간 사업비 504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프리미엄급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급 부품을 국내 기술로 생산할 수 있도록 타이어, 휠, 제동 등 3대 부문 핵심부품 5종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연구개발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9종), 평가기법(3종)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5년 1월에 F1경주장 인근에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개발 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5월에 준공하면 자동차부품연구원의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가 입주하여 ‘차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뿐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F1 서킷을 활용한 극한 성능 평가가 이뤄져 현재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능시험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국내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프리미엄 자동차 부품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된 국산 자동차 부품을 프리미엄

차량과 모터스포츠 차량에 우선 적용하여 국내 부품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진부

기업도시담당관 조재윤, 튜닝밸리조성팀장 정동환, 담당자 심홍식

2)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자동차기술 선진국들은 F1서킷 주변에 정부 주도로 대규모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튜닝산업이 핵심이다. 우리도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국제공인 1등급 F1서킷 주변에 튜닝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6월 산업통산자원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4년간 437억원을 투입하여 튜닝부품 시험평가용 장비(18종), 기업지원시설, 평가기법(8종)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일반 차량과 구별된 튜닝 선진국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시험 및 검증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여 국내의 영세한 자동차 튜닝부품 제작 업체들이 이러한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국내 튜닝 시장이 활성화되면, 2020년에는 1.5조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튜닝 선진국의 경우 튜닝 시장이 A/S시장의 30%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세 배 정도 커질 것으로 보고, 100조원에 달하는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강소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

기업도시담당관 조재윤, 튜닝밸리조성팀장 정동환, 담당자 김형호

1-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세계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어 국가 간 경쟁과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3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3개 권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을, 2013년 동해안권, 충북을 추가 지정하였다.

200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조합형태로 공식출범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대내적으로는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접경지역으로 한반도 최남단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과 함께 우리나라 3각 물류수송체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기간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상해, 홍콩, 싱가포르 등 중국과 태평양 지역 주요항만의 연결축 상에 위치하고 있어 동남아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장점과 함께 광양제철, 여수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산업벨트를 활용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 물류 중심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 동북아 경제권의 교역규모가 커질수록 광양만권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광양항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형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함에 따라 물류와 배후 산업, 관광 등이 상호 연계된 융복합 산업 성장과 총 22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서비스·기간산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등 광양만권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 광양만권 산업단지 조기 개발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신덕지구, 화양지구, 율촌지구, 광양지구, 하동지구의 5개 지구를 구분하여 각 단지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보완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2003년 10월 30일 5개 지구 24개 단지(88.98km²)를 대상으로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단지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재 총 5개 지구 21개단지(77.69km²)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2개 단지가 개발완료 및 개발중으로 개발률은 59.8%에 이르고 있다.

신덕지구는 광양만권 산업유치 지원 및 외국인 정주를 위한 교육·의료허브로 개발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배후기능 수행과 교육·주거·레저 등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대배후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 광양복합업무단지, 웰빙카운티단지, 선월하이파크단지 등 6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세풍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6월 착공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돌입하였으며, 우선착수한 1단계 조성부지(0.59km²)에는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R&D센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바이오패키징소재기업 등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2017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 7월 정부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으로써 기존 저부가가치 및 장치산업중심의 석유화학 산업환경이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사업체체로 개편되는데 핵심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핵심 기능성 화학산업의 국산화 촉진 및 화학산업 수익률 향상 등 국가 화학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는 매개체가 될 전망이다.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아울러, 해룡산단은 2011년 6월부터 일반산단 1차부지 조성공사(0.62km²)를 착수하고 2015년 12월말 기준 공정률 80%로 2016년 상반기 조성을 완료하고,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한 뿌리산업 특화 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화양지구는 앞으로 다가올 해양레저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광·레저·스포츠·휴양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 연수원 등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50실 규모의 콘도를 신축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그동안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 지역 관광여건 호전과 한중 FTA 발효 등으로 화양지구의 투자가치는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화양지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기존 사업시행자가 개발완료 내지 개발중인 약 1.43km²를 제외한 8.56km²에 대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화양지구 조감도>

울촌지구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화학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철강산업 등 기존 기반산업을 연계한 생산기능과 인근 산단 물류기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울촌 1·2·3산업단지 조성, 울촌 항만부지 건설 등 4개단지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울촌제1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95%, 분양률 77%로 마무리 공정을 진행 중이며, 공공시설물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2015년부터 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구 항만부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직접 개발에 착수하였다.

광양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물류거점 확보를 개발전략으로 삼고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의 성장을 위해 환적화물 활성화를 위한 기능 확보와 함께 제철 관련 재료 및 비철금속 거점화를 통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지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1·2단계, 포스코터미널CTS, 황금 산업단지, 성황국제비즈니스 파크 등 6개 단지를 개발추진하고 있다.

이중 2014년 12월 포스코터미널CTS 단지의 준공을 통하여 스테인

리스강의 주원료인 페로니켈을 생산하는 페로니켈 공장2기 증설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페로니켈 생산능력이 순 니켈 기준 연간 3만톤에서 5만 4천톤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나고 니켈의 자급률은 8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성과는 광양만권 뿐만이 아닌 국익에 크게 기여하고 향후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성장에 중요한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추진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부장 장정기, 개발정책과장 이근교, 담당자 윤일준

나. 광양만권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주변 여건과 상황이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국내·외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투자유치 DB 통합관리, 현지 거주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13명),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 분석 및 광양만권 바이오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전문업종 집적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산단별·업종별·국가별로 특화된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현대제철, 협성히스코, 승산팩, DSR제강, 현대스틸산업 등 국내·외 주요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지금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 9억불을 포함한 200개 업체, 155억불을 유치해 38천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21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 14억 7천만불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현재 투자유치가 진행중인 MOU 체결기업은 103개 업체 91억불에 달하며 향후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해가고 있고, 민선 6기 출범이후 47개 기업, 투자유치 27억불, 일자리 6천 5백여개를 창출하였다.



<투자협약 체결>

추진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기획팀장 신영걸, 담당자 박수원

다. 입주기업 지원서비스 강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산단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과 적기 지원으로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구직자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기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생들의 직업의식 고취와 지역 인재의 취업 연계를 위한 ‘지역대학생 입주기업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우수한 지역인재가 입주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법률, 세무·회계 등 기업활동 분야별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사라자문단’을 구성하여 무료 자문활동을 실시중이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을 ‘1기업 1도우미’로 확대 지정 운영하는 등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울춘제1산단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던 풋살경기장을 조성하였으며, 그 밖에도 ‘광양만권 입주기업 CEO 및 유관기관장 워크숍’ 등을 통해 입주기업과의 소통과 상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광양만권내 입주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학과 산업체 간 맞춤형 인력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주기업 구인난 해소와 기업 친화적 입주기업 지원서비스 및 지역주민 배려서비스를 강화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기업하기 좋은 산단으로 조성하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기업과 CEO 워크숍 개최>

추진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장 구희팔, 담당자 박래춘

1-4 남해안권 개발과 행복생활권 구축

가.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추진

전남, 경남, 부산 3개 시도지사의 “남해안시대 공동선언”(2005. 2. 4.) 이후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제정(2007. 12. 27)되었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안권 35개 시·군에 4개분야 166개사업 24조3,900억원을 투자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010년 5월 28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우리 도의 해안권 16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에 4개분야 67개사업 10조7,577억원(국비 4조1,045억원, 지방비 1조2,330억원, 민자 5조4,202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표2-156>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분야별 사업비 내역

(2015. 12. 기준)

분 야	개소수	사 업 비	비 고
합 계	67	10조7,577억원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조성	45	3조7,016억원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	15	3조6,546억원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3	2조438억원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육성	4	1조3,577억원	

대부분의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촉진을 위해 시범사업, 선도사업,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2-157> 남해안권 발전사업 추진현황

(2015. 12. 기준)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추진기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5개사업	754	306	76	372	
소 계		2개사업	598	228	76	294	
선도사업	진도항 배후지 개발	2013~2017	432	150	75	207	진도항개발사업소
중점사업	고흥 우주랜드 조성	2013~2016	166	78	1	87	고흥우주항공사업소
소 계		3개사업	156	78	-	78	
시범사업	해안경관 조망벨트 조성	2011 완공	22	11	-	11	여수시 등 7개 시·군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	2013 완공	100	50	-	50	광양시
	해안마을 미관개선	2012~2014 완공	34	17	-	17	고흥군

2010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과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 연구용역(2013.11.~2014.5.)”결과 등을 반영한 종합계획 변경용역을 전남과 경남 공동으로 추진하고, 남해안권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민간 투자유치 등 사업비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지역발전팀장 오수미, 담당자 강상훈

나.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 추진

영·호남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세부과제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선정(2013. 3.)하였다.

2013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남 4개 시·군(여수, 광양, 순천, 구례), 경남 4개 시·군(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총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해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확정하였다. 2014년 6월 확정된 “동서통합지대 조성 마스터플랜”에서는 총 사업규모를 5개분야 43개사업 8,660억원(전남, 34개사업 6074억원)으로 하고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10건을 발굴하였다.

<표2-158> 동서통합지대 선도사업

(2015. 12. 기준)

연번	사업명	지역	예산(억)				사업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10개소)			1,810	650	740	420		
1	동서통합대교 건설	광양 하동 구례	430	215	215		2016~2019	공동
2	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광양 하동 구례등	40	20	20		2017~2019	공동
3	섬진강벚길복원 및 수상레저기반조성	광양 하동 구례	200	100	100		2016~2019	공동
4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	광양 하동	270	60	90	120	2017~2019	공동
5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협력강화 및 축제연계성 강화	광양 하동	90	45	45		2017~2020	공동
6	동서통합활성화 지원센터	미정	100	20	80		2017~2020	공동
7	섬진강 하늘길 동서 케이블카 설치	광양 하동	300	30	30	240	2018~2020	공동
8	남해 동서기록 문화교류단지 조성	남해	180	90	90		2016~2019	경남
9	남해 국가별 테마거리 조성	남해	100	20	20	60	2017~2018	경남
10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구례	100	50	50		2016~2018	전남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섬진강 양안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여 산업육성과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등 동서통합의 상징성을 갖는 사업이다

앞으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에 반영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선도사업 8개소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지역발전팀장 오수미, 담당자 강상훈

다. 창조지역사업 추진

창조지역사업은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획일·전례 답습적 관행을 극복하고 지역의 창조적 노력을 지원하고자 2010년에 지역발전위원회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문화예술, 생태자원, 유희시설 등을 활용한 ‘새롭고 차별성이 있는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게 목적이다.

2015년에 추진한 사업은 8개 사업에 16억원 규모로, 진도군의 상장레문화사업은 셋김굿과 다시래기를 활용한 상장레체험 프로그램 운영, 곡성군의 심청스토리 사업은 심청을 소재로 하는 할머니 인형극 40회 공연 실시, 강진군의 영랑시 마을사업은 시 콘서트 6회 개최 및 시의 거리 착공, 무안군의 품바사업은 품바 발상지 축제·5일장 150회 공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담양군의 대피리학교 사업은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를 100회 운영하고, 순천시 철도마을 사업은 옛 철도관사를 역사관·게스트하우스로, 완도군의 느린 섬 힐링캠프 사업은 폐교를 여행학교로 재생하고, 영암군의 생태체험학교 사업은 공동 생태시설의 개발·확산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우리 도는 창조지역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사업설명회와 발굴사업 보고회를 열었으며,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 자문단을 시·군별로 구성, 운영해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해왔다.

<표2-159> 2015년 창조지역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시군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계	국	지	
계	8개	1,636	1,307	329	
곡성 & 심청 스토리 공감 행복누리 사업 (2015~2017)	곡성	130	106	24	할머니 인형극 개발 및 공연, 주민극단 구성 및 공연, 초등학교 판소리 배우기
자연을 살리는 체험학교 선애마을 (2015~2017)	영암	140	112	28	태양광 발전장치 및 급탕시스템 설치, 자원순환장 정비, 화목 적재소 설치
전통민속 상·장례문화 (2015~2016)	진도	200	180	20	민속전수관 준공후 상여제작, 상장례 공연 및 체험 추진
철도문화 마을 만들기 (2014~2015)	순천	120	80	40	역사관 및 게스트하우스 착공, 전시물 수집 및 전시관 운영
시가 꽃피는 마을 조성 프로젝트 (2014~2016)	강진	500	400	100	영랑시인 감성학교 운영, 시 콘서트 개최, 시의거리 조성
천년의 소리, 대피리 고을 문화학교 (2014~2016)	담양	120	94	26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동아리팀 운영, 연주자 양성
느린섬 여행학교 힐링캠프 메카만들기 (2014~2016)	완도	125	100	25	폐교 활용 느린섬 여행학교 조성 관련 관광상품 개발
무안품바 자원화 (2012~2015)	무안	301	235	66	스토리개발 축제·5일장 공연, 전수·학교 교육, 페스티벌 개최

2016년에는 전국 최다인 4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3억 7천만원을 지원받는데, 강진의 음악하모니 사업은 지역 음악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 구례의 야생화 오감만족 프로젝트는 버려지는 야생화로 소득 창출, 완도의 섬 여행등대 사업은 가고싶은 섬의 매력 제고, 순천의

생태창조체험마을 사업은 소풍 1번지 마을로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영원, 지역발전팀장 오수미, 담당자 송경언

라.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

1) 생활권 선도사업

시·군간 칸막이를 넘는 협력체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3년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다 2014년 新 지역발전정책 수립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밀접한 님비(NIMBY)현상 해소, 교육, 주민안전 및 의료, 일자리창출, 생활인프라 확충 등 5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시행 전년도에 시군에서 전남도를 경유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 선정단을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통해 당해연도 2월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 실시로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생활권내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2014년에 6개 생활권을 구성했다. 그 내용은 ① 서남부권(목포, 무안, 해남, 진도, 신안) ②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③ 구곡담권(담양, 곡성, 구례), ④ 중부권(나주, 화순), ⑤ 서북부권(함평, 영광, 장성) ⑥ 중남부권(장흥, 강진, 영암, 완도) 등이다.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선정된 6개 생활권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9,183백만원(국비 8,266, 시군비 917)을 투입하여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생활권 치매거점병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단위 연계협력사업으로 광주광역시와 함께 취약지 응급실 원격협진시스템, 한뿌리 생활권 지역경제 순환증진프로젝트 등 2개 사업(700백만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에 선정된 5개 생활권의 5개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9,792백만원(국비 7,568, 도비 664, 시군비 1,560)을 투입하여 농어촌 취약지역 응급협진 네트워크 구축, 농산업 창업육성 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역단위 연계협력사업으로 광주광역시와 상생 로컬푸드체계 구축사업(2,681백만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2-160> 2014년 생활권 선도사업 현황

생활권	참여 시군	사업내용	총사업비(백만원)		
			총계	국비	시군비
7개 생활권		8개 사업	9,183	8,266	917
6개 생활권		6개 사업	8,483	7,636	847
서남부	목포, 해남, 진도, 신안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1,000	900	100
동부	보성, 여수, 순천, 고흥	패류종묘 배양장 공동활용	2,105	1,895	210
중부	나주, 화순	도농 상생드림 일자리 지원센터	1,581	1,423	158
구곡담	담양, 구례, 곡성	농산업 도농일자리 연계사업	1,579	1,422	157
서북부	장성, 함평, 영광	생활권 치매거점 병동 운영	1,000	900	100
중남부	완도, 장흥	도서 낙도주민 이동편의시설 확충	1,218	1,096	122
1개 생활권		2개 사업	700	630	70
광주 중추	광주, 나주, 장성, 함평, 화순, 담양	취약지 응급실 원격협진 시스템	100	90	10
광주 중추	광주, 나주, 화순	한뿌리생활권, 지역경제순환증진 프로젝트	600	540	60

<표2-161> 2015년 생활권 선도사업 현황

생활권	참여시군	사업내용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6개 생활권		6개 사업	12,473	9,708	825	1,940
5개 생활권		5개 사업	9,792	7,568	664	1,560
서남부	목포, 해남, 무안, 진도, 신안	농어촌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구축·운영	375	300	20	55
동부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전남 동부권 명품 생태 치유벨트 조성	2,654	1,858	239	557
구곡담	구례, 곡성, 담양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중지능 교육활동 운영	2,538	2,030	152	356
서북부	함평, 영광	재난재해 공동 시설장비 및 보관창고 지원	1,625	1,300	97	228
중남부	강진, 영암, 장흥	농산업 창업육성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2,600	2,080	156	364
1개 생활권		1개 사업	2,681	2,140	161	380
광주 중추	광주, 나주	생활권 중심의 소·생 상생 로컬푸드 체계구축	2,681	2,140	161	380

앞으로 도 및 시·군 합동으로 사업현장을 점검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군 담당자 워크숍, 보고회 등을 통해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도, 시·군, 광주전남연구원을 주축으로 생활권 공모사업 기획단을 구성해서 다음년도 공모사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은 1인당 GDP 3만불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어 주변화된 농어촌 오지마을 및 도시빈곤 지역이 상존하고 있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안전 등이 문제되는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2014. 12. 2.)하여 추진하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역을 통칭하는 명칭을 공모해 최종적으로 ‘새뜰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새뜰마을은 ‘마을을 새롭게 정비하여 희망을 가꾼다’는 의미로 농어촌 낙후마을, 도시 달동네와 쪽방촌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도 갖추지 못한 곳을 대상으로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지역행복생활권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선정절차는 시군에서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보완하고, 도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한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국비지원을 결정한다.

2015년 신규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도시지역 2개소(여수, 순천), 농어촌지역 10개소(담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신안) 등 총 12개소에서 3~4년간 394억원(국비 278, 도비 30, 시군비 86)을 지원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안전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2-162> 2015년 새들마을 사업내역

마을명	사업내용	국비(백만원)
12개		27,775
여수 광림지구 (2015~2018)	▪ 한국전쟁 1·4후퇴 당시 몰려든 피난민들로 장군산 자락에 자리한 달동네마을 소방도로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4,936
순천 청수골지구 (2015~2018)	▪ 순천시 중심 시가지에 인접하면서 산비탈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의 공동생활 홈 조성 및 골목길 개선	4,785
담양 평지지구 (2015~2017)	▪ 인근 하천(오례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배수로 및 주택정비	1,263
곡성 구룡지구 (2015~2017)	▪ 경사면에 위치하여 붕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마을 축대 및 담장 보수	1,324
보성 봉림지구 (2015~2017)	▪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차량진입 불가능하고, 사면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 마을안길 정비 및 빈집수리	2,590
화순 구암지구 (2015~2017)	▪ 탄광촌으로서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주택 노후 및 기반시설 훼손된 지역 주택 및 안전시설 정비	3,080
장흥 선학동지구 (2015~2017)	▪ 노후주택 및 슬레이트 비율이 높은 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및 하수도 정비	1,131
해남 해창지구 (2015~2017)	▪ 과거 포구가 위치한 곳으로 간척사업 이후 주민 소득이 낮아지고 생활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상하수도 정비 및 축대 설치	2,567
영암 청용지구 (2015~2017)	▪ 주도로의 비포장 등 교통 환경이 열악하고,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위험에 노출지역 옹벽 및 축대 정비	1,354
무안 남천지구 (2015~2017)	▪ 남천 소하천 범람으로 농경지가 상습 침수 되는 지역의 하천 및 상하수도 정비	1,476
완도 넓도지구 (2015~2017)	▪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도서지역의 상수도 및 선착장 정비	2,324
신안 마산지구 (2015~2017)	▪ 4개 섬이 연결된 섬 지역으로, 섬간 연결로 노후화 및 선박 접안시설 불량 지역의 접안 시설 및 연결도로 정비	945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지역발전팀장 오수미, 담당자 장명희, 이학래

2. 지역맞춤형 개발사업

2-1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

가.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도시·택지개발사업 추진

1) 광역도시계획분야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우리 도에는 광주권(2001~2020), 광양만권(2003~2025), 서남권(2005~2025) 등 3개 권역 15개 시·군 11,483km²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먼저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 전 지역과 함평군 해보·월야·나산면 일부지역을 포함한 2,995km²이며, 계획인구는 220만명으로 2003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축·개발축 등 공간구조와 생활권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1973년 1월 17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287.11km²를 대상으로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를 대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20.719km²를 해제 가능면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광역공급시설 확보계획을 반영하였다.

광역시설로는 광주외곽 순환고속도로 계획과 광주~완도간,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경전선 직복선화 및 지하철의 나주·화순 연장 등이 반영되어 있다.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은 여수·순천·광양시 등 3개 도시의 연담·광역화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광양만권 전역이 포함된 5,279km²이며, 계획인구는 115만명으로 2006년 5월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도로·철도 등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국제교역 및 국제문화 배후도시로 성장시키고 전주~여수간 고속도로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를 계획하였다. 여수~묘도~광양을 연륙하여 순환도로체계를 갖추고, 3개 시를 순환하는 경전철을 계획하였으며 광양항을 국제교류허브항으로, 여수항을 관광허브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5년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은 도청 이전, 기업도시와 무안국제공항건설 등 서남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다. 목포, 무안, 영암, 해남군 전 지역과 완도·진도·신안 일부지역이 포함된 3,711km²을 90만명의 인구를 갖는 광역도시를 성장시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계획으로 2009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주요내용으로는 2순환 6방사형의 교통축과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무안공항과 남악 등을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섬 개발의 활성화와 국비지원을 위하여 다도해 특정지역 지정 계획과 영산강 살리기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반영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계획으로 국가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계획을 근거로 수립하게 되며, 자치단체 간에 대립되는 대규모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으로 계획 간에 협의 조정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해 나가고 있다.

광역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 중 광주~무안, 전주~여수,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여수~묘도~광양간 연륙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해제가능면적 20.719km²의 30%인 6.214km²를 추가 해제가능면적으로 확보하여 총 26.933km²중 2015년까지 집단취락지역 등 16.29km²를 해제하여 270.82km²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제잔여면적 10.643km²는 개발수요에 따라 해제할 계획이다.

<표2-163>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지정 시·군별 현황

(2015. 12월)

구 분		계	나주	담양	화순	장성
면적	당초	287.11	42.9	115.18	41.70	87.33
	현재	270.82	39.42	108.50	41.19	81.71

2) 도시계획분야

2003년 1월 1일 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광주광역시 연접 시·군과 10만 이상 도시, 기업도시가 지정된 군 지역에 대하여는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시·군에 대하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담양·화순·해남·영암·무안·함평·장성군 등 12개 시·군으로 모두 수립하였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22개 시·군이 전부 결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대부분의 시·군이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도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15,370km²중 도시지역은 11.2%인 1,727km², 관리지역은 22.3%인 3,430km², 농림지역은 40.7%인 6,250km²,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5.8%인 3,963km²로 2013년과 대비하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0.2km²)이 증가하고 공업지역(0.8km²) 및 녹지지역(0.4km²), 미지정면적(0.2km²)이 감소하여 3.0km²가 감소하였고 관리지역은 31km²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21km², 5km² 감소하였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등 53개 시설에 결정 면적은 732.2km²로,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2020년 7월)하여 우선 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주민불편 해소, 기업투자 불편해소, 시·군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한 용도지역·지구·시설 결정(변경) 심의·자문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12회 개최하여 총 29건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5년 9월 30까지 조성계획 미 수립 도시공원의 경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2015년 10월 도내 1,385개소 66.4km² 도시공원 중 139개소 7.0km²(9.1%)를 해제하였다.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표2-164> 전라남도 도시·군계획 수립현황

(2015. 12.)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비고
	면적(km ²) (육지+해면)	계획인구 (인)	목표 연도	최 종 승인일	면적 (km ²)	계획인구 (인)	목표 연도	결 정 고시일	
계	10,282.20	2,308,000			15,369.83	2,544,129			
목포	112.49	310,000	2020	2006.11.13	112.49	310,000	2020	2014.07.31	
여수	3,853.64	390,000	2030	2014.12.11	1,024.82	374,000	2020	2015.04.30	
순천	936.06	390,000	2025	2009.12.23	935.73	340,000	2015	2009.03.27	
나주	603.87	150,000	2020	2011.05.02	608.62	140,000	2015	2011.05.04	
광양	497.65	320,000	2025	2008.01.22	497.65	250,000	2015	2009.07.13	
담양	455.12	65,000	2020	2007.12.31	455.00	61,000	2015	2010.11.12	
곡성	-	-	-	-	548.42	33,000	2015	2009.01.20	
구례	-	-	-	-	443.14	32,000	2015	2010.01.20	
고흥	-	-	-	-	1,179.47	68,500	2015	2010.02.05	
보성	-	-	-	-	743.53	45,000	2020	2012.01.05	
화순	786.21	86,000	2020	2009.05.27	786.84	70,178	2015	2010.12.29	
장흥	-	-	-	-	649.32	50,451	2015	2009.06.26	
강진	-	-	-	-	563.22	50,000	2015	2009.12.04	
해남	907.23	135,000	2025	2009.01.07	963.83	130,000	2015	2009.06.19	
영암	565.79	210,000	2020	2006.02.07	630.80	150,000	2015	2009.04.27	
무안	652.92	150,000	2025	2008.05.01	533.30	110,000	2015	2009.09.11	
함평	392.72	32,000	2020	2010.12.22	425.67	35,000	2015	2009.07.21	
영광	-	-	-	-	554.63	60,000	2015	2009.05.04	
장성	518.50	70,000	2020	2006.11.03	518.58	65,000	2015	2009.06.26	
완도	-	-	-	-	1,079.72	55,000	2015	2010.04.13	
진도	-	-	-	-	994.06	50,000	2015	2011.03.18	
신안	-	-	-	-	1,120.99	65,000	2015	2009.11.13	

추진부

지역계획과장 변재홍, 도시계획팀장 백창환, 담당자 김재인, 장경신

3)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분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한 도시 주택난을 해결하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도내에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은 총 86지구 35,375천㎡, 투자사업비는 4조 9천억 규모이며, 유형별로 분류하면 택지 개발사업 24지구 12,954천㎡, 도시개발사업 28지구 11,858천㎡, 토지구획정리사업 34지구 10,563천㎡이며 이중 67지구 17,383천㎡를 완료하였다.

추진중인 사업은 19지구 17,992천㎡이며 유형별로 보면 택지개발사업 2지구 9,082천㎡, 도시개발사업 13지구 6,574천㎡, 토지구획정리사업 4지구 2,336천㎡로서 주택용지 수용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2015년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순천 오천지구(591천㎡)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광양 마동지구(548천㎡), 영암 동무2지구(45천㎡)를 준공하였으며, 여수 만흥지구(222천㎡) 도시개발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1,979천㎡) 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및 안정적인 택지공급에 기여하였다.

전라남도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표2-165> 전라남도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 억원)

구분	시군	지구명	시행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지구지정일	비고	
합계		24		12,954	28,957				
추진지구	소계	2		9,082	15,185				
	목포무안	남악신도시	소계	2개기관	8,941	14,637			
			목암	목포시	2,608	3,947	2003~2021	2001. 4. 25	100%
			남악	전남개발공사	3,631	5,410	2003~2015	2001. 4. 25	100%
			오룡	전남개발공사	2,702	5,280	2005~2021	2001. 4. 25	5%
고흥	남계	내공사	141	548	2004~2016	2004. 12. 10	35%		
완료지구	소계	22		3,872	13,772				
	목포	상동	주택공사	56	503	1988~1992	1984. 4. 11	준공	
	"	하당1	목포시	823	1,389	1989~1996	1989. 5. 11	"	
	"	연산	주택공사	52	331	1993~1996	1990. 7. 26	"	
	"	용해1	"	73	380	2000~2004	1998. 10. 7	"	
	"	용해2	내공사	338	983	1998~2013	1998. 10. 7	"	
	여수	여서,문수	여수시	382	467	1986~1995	1981. 6. 11	"	
	"	미평	"	90	456	1991~1995	1991. 4. 4	"	
	"	둔덕	주택공사	20	120	1992~1997	1991. 12. 10	"	
	"	죽림	"	204	1,014	1992~2008	1990. 3. 21	"	
	순천	금당	전라남도	231	1,161	1990~1992	1990. 3. 21	"	
	"	연향1	순천시	230	970	1989~1992	1989. 10. 14	"	
	"	조례1	"	56	124	1993~1996	1987. 12. 11	"	
	"	조례2	주택공사	53	483	1989~1992	1987. 12. 11	"	
	"	왕지	순천시	98	678	1996~1999	1995. 8. 29	"	
	"	금당2	"	159	1,104	1996~1999	1995. 8. 29	"	
	"	연향2	토지공사	108	324	1992~1999	1996. 9. 3	"	
	"	연향3	순천시	87	528	2000~2004	1998. 3. 21	"	
	"	오천	순천시	591	1,891	2012~2015	2010. 4. 30		
	나주	대호	토지공사	44	252	2000~2002	1895. 2. 17	"	
화순	광덕1	전라남도	25	48	1989~1991	1889. 10. 27	"		
"	광덕2	"	48	139	1990~1991	1890. 6. 29	"		
"	광덕3	"	104	427	1994~1997	1892. 9. 4	"		

<표2-166> 전라남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

구분	시·군	지구명	시행자	면적	사업기간	비고
합	계	28지구		11,858		
추진지구	소계	13지구		6,574		
	목포	백련	내공사	85	2011~2016	91%
	"	임성	목포시장	1,979	2012~2020	실시계획 수립중
	여수	만흥	여수시장	222	2015~2018	실시계획 수립중
	순천	연향·상삼	(주)삼덕건설	31	2012~2015	44%
	"	용당	케이디건설(주)	45	2013~2016	실시계획 수립중
	나주	남평	나주시장	303	2007~2015	94%
	광양	중동	(주)리채	53	2008~2015	86%
	"	성황·도이	광양시장	650	2018~환지 처분일(2020)	실시계획 수립중
	"	목성	(주)부영주택	729	2008~2015	실시계획 수립중
	"	와우	광양시장	637	2014~환지 처분일(2018)	5%
	"	광영·의암	광양시장	546	2012~2018	3%
	함평	기각	(주)신해산업개발	11	2012~2016	시행자변경 검토중
	담양	침단문화복합	담양군수	1,283	2014~2018	실시계획 수립중
연미지구	소계	15지구		5,284		
	목포	신도심2	목포시장	688	1994~1999	준공
	나주	삼영	나주시장	109	987~1989	"
	"	송월	"	83	1996~1999	"
	광양	중마1	광양시장	337	1989~1991	"
	"	중마2	"	734	1991~1993	"
	"	중마3	"	1,560	1991~1993	"
	"	광영	"	169	1986~1988	"
	구례	봉북	구례군수	185	1992~1997	"
	해남	해리	해남군수	40	1992~1994	"
	무안	불무	무안군수	53	1994~1995	"
	광양	도촌	광양시장	24	2002~2006	"
	순천	왕조(운곡)	순천시장	411	2005~2010	"
	나주	송월	나주시장	298	2006~2010	"
영암	동무2	영암군수	45	2008~2014	"	
광양	마동	마동도시개발조합	548	2008~2015	"	

추진부

지역계획과장 변재홍, 도시계획팀장 백창환, 담당자 최영택

나. 여수국가산단 공장증설 지원

산단 입주기업들이 기존공장에 연접하여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녹지 외에는 산단 내 가용부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2013년 7월 11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 내 공장증설 지원”이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여수시에서 녹지해제기준 마련 및 타당성조사용역(2013. 1~12)을 실시하였다.



9차례에 걸친 기획재정부 주재 공장증설지원 관련 회의(2013. 10. ~2014. 9.) 개최 및 2014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자문(2014. 10. 2) 및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2014. 10. 14~10. 23)을 거쳐 우리 도에서는 2014년 11월 대체녹지 조성 조건으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여수국가산단 내 녹지해제로 662천㎡가 대부분 공장용지로 전환되고, 별도로 34만 3000㎡의 대체녹지가 조성된다. 여천NCC(주) 등 6개 기업은 2020년까지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가 되는 나프타 분해부터 중간제품인 에틸렌, 부타디엔 추출, 응용제품인 의약품 원료와 바이오 원료 생산까지 석유화학의 단계별 공정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개 기업에서 2조 6,550억원 투자될 예정이며 436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생산 2조 800억원, 수출 1조 5,799억원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추진부

지역계획과장 변재홍, 산단조성팀장 최인규, 담당자 김광호

다. 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1) 권역별 산업구조 현황

70년대 중반 정부의 중화학공업 발전정책에 힘입어 여수 석유화학 단지 및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의 산업 집중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전남 제조업 생산에서 광양만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체수는 8.0%에 불과하지만, 총 생산액에서는 30.0%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생산원가 상승 및 공해유발, 소품종 대량생산체제 등으로 인해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 중화학공업 발전상황을 감안할 때 광양만권의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은 시설의 현대화 및 신기술개발 등 대외 경쟁력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목포 등 서남해안권의 산업생산 비중을 보면 단순 농수산물 가공 등 소규모 가내공업 형태가 대부분이나 대불 국가산업단지 및 삼호 일반산단 활성화, 영산강 유역의 대단위 간척 사업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① 광주송정~목포간 호남선 KTX 건설 ② 남해안 철도(보성~목포) 건설 ③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④ 흑산공항 건설 ⑤ 연륙·연도교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동남아 등 중국 진출의 지리적 장점을 가진 전남 서부권지역은 향후 물류 산업과 조선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2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한국전력이 이전함에 따라 나주 혁신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에너지 관련기업 500개사 유치 및 일자리 2만개 창출을 위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도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등 광주시 인근지역과 전남에서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산업단지는 광주시에 비해 지가가 싸고, 시장 접근성, 인력조달 및 정보수집 용이, 편리한 교통망 등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 산업단지 조성현황

전남지역에 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로는 여수, 여수 삼일비축, 광양, 영암대불,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등 5개소가 있고 일반산업단지는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18개 시군에 32개소가 있다.

<표2-167> 전남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2015. 2분기)

(단위 : 천㎡)

시 군	산 업 단지명	지정 면적	분양 대상	분 양 현 황				비고
				분양공고 (A)	분 양 (B)	미분양 (A-B)	분양률 (B/A)	
합 계	37개소	239,951	106,213	79,749	73,998	5,750	92.8%	
국가산단	5개소	174,320	63,640	60,810	60,503	307	99.5%	
여 수	여 수	50,650	26,220	25,313	25,306	7	100%	
"	삼일비축	4,157	3,442	3,442	3,442	0	100%	
광 양	광 양	96,405	24,123	23,795	23,795	0	100%	
영 암	대 불	20,887	8,260	8,260	7,960	300	96.4%	
함 평	빛그린	2,221	1,595	0	0	0	0%	
일반산단	32개소	65,631	42,573	18,939	13,495	5,443	71.3%	

제4절 활기 넘치는 지역개발 촉진

시 군	산 업 단지명	지정 면적	분양 대상	분 양 현 황				비고
				분양공고 (A)	분 양 (B)	미분양 (A-B)	분양률 (B/A)	
목 포	삼 진	218	167	167	167	0	100%	
"	대 양	1,551	1,075	999	0	999	0%	
"	세라믹	116	95	95	33	62	34.7%	
여 수	오 천	222	131	131	131	0	100%	
"	울 촌 1	9,130	6,307	6,307	4,896	1,411	77.6%	
"	울 촌 2	3,793	2,432	0	0	0	0%	
"	울 촌 3	9,762	5,603	0	0	0	0%	
"	묘 도	368	250	0	0	0	0%	
순 천	순 천	583	461	461	461	0	100%	
"	해 룡	1,592	1,176	209	209	0	100%	
나 주	문 평	323	250	250	250	0	100%	
"	나 주	549	417	417	379	38	90.9%	
"	혁 신	1,785	1,316	47	47	0	100%	
"	신 도	298	229	164	164	0	100%	
광 양	황 금	1,116	787	0	0	0	0%	
"	신 금	398	293	293	162	131	55.3%	
"	익 신	473	373	0	0	0	0%	
"	세 풍	3,000	1,745	0	0	0	0%	
담 양	담 양	581	350	334	0	334	0%	
고 흥	도 양	2,684	1,766	0	0	0	0%	
화 순	생물의약	755	398	388	218	169	56.2%	
장 흥	바이오식품	2,892	1,278	1,206	188	1,018	15.6%	
강 진	환 경	657	479	479	40	439	8.4%	
해 남	화원조선	2,058	1,502	1,502	1,502	0	100%	
영 암	삼 호	2,971	2,428	2,428	2,428	0	100%	
"	용 당	351	281	281	281	0	100%	
무 안	운 남	75	48	48	48	0	100%	
함 평	동함평	735	504	504	318	186	63.1%	
영 광	전기자동차	1,652	1,144	1,144	602	542	52.6%	
장 성	나 노	902	624	546	432	114	79.1%	
진 도	군 내	686	539	539	539	0	100%	
신 안	조선타운	13,355	8,125	0	0	0	0%	

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용지 30%까지 유해업종만 입주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기업의 수요에 맞춰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는 등 분양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추진부

지역계획과장 변재홍, 산단조성팀장 최인규, 담당자 김남현

라. 농공단지 조성

1) 농공단지 조성현황

우리 도 농공단지는 지난 1984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2012년까지 21개 시·군 63개 단지(9,958천㎡)가 지정되어 2015년까지 52개 단지를 조성완료하고 11개 단지는 조성중에 있다.

규모는 165천㎡미만 45개소, 165천㎡이상~331천㎡미만 16개소, 331천㎡이상 2개소로 331천㎡미만이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다. 농공단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은 목포시 산정농공단지로 530천㎡이다.

2015년 말 보상 및 조성중인 농공단지는 11개소(화양한옥, 남평, 동면2, 화순 식품, 칠량2, 땅끝해남, 영암, 명암축산, 영광 식품, 해양생물, 군내)로 10개소는 공영개발방식, 1개소(영광식품특화)는 민간개발로 추진중이다.

곡성, 구례, 고흥, 무안 등 신규 농공단지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이 연계된 복합화된 농공단지로 육성하여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지역민 소득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2) 분양현황

2015년 12월 기준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 52개의 분양현황을 보면 (조성중인 11개 단지 제외) 분양공고 면적 8,136천㎡중 7,892천㎡로 분양률은 97%이다.

<표2-168> 농공단지 분양현황(2015. 4분기 기준)

구 분	지정면적 (천㎡)	조성완료 (천㎡)	분양현황				평당분양 가격(천원)
			분양공고	분양면적	미분양	분양률	
농공 단지	63개단지 10,680	52개단지 9,202	8,136	7,892	244	97	46,150원/ ㎡

추진부

지역계획과장 변재홍, 산단조성팀장 최인규, 담당자 박장철

마.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1) 하천현황

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하천연장은 총 3,258.8km로 이중 국가하천이 327.5km, 지방하천이 2,931.3km이다.

<표2-169> 하천현황

구 분	하천수 (개소)	연 장 (km)	정비구간 (km)	장 래 (km)	관리주체
계	561	3,258.8	2,543.6	715.2	
국가하천	7	327.5	322.9	4.6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554	2,931.3	2,191.7	739.6	전라남도

2) 하천 정비현황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982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치수에 집중하여 추진하였으나, 최근 하천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2009년부터 생태계 복원 등 친수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사업간 혼선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871km, 4조 3,313억원 중 2015년까지 1,071km, 1조 7,137억원(39.6%)을 투입하였다.

하천정비는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자재 및 공법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생활공간으로 활용토록 한다. 또한 재해위험지역을 해소하여 하천변의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갈수기 인근 농경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가뭄해소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추진부 지역계획과장 변재홍, 하천시설팀장 김정남, 담당자 이광규

2-2. 주거환경 개선 및 낙후지역 개발

가. 취약계층 등 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 주택개량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 노후주택 개보수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대기업, 복지재단에서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54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서 주거하는 113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물을 점검하였다.

향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와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확보하고 2016년부터 전라남도 주도로 민간단체,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과중한 자기 부담금 및 용자금 상황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도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에 대해 신축·개축·리모델링 등을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975년부터 시작하였다.

농어촌 노후 불량주택 개량에 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자 대상은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 신·개축의 경우이며, 지원 기준은 2014년까지는 동당 6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토지·주택 등 담보물 감정평가액의 70% 수준에서 연리 2.7%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주택 83,255동, 1조 4,986억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은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표2-170> 연도별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실적

구 분	합 계	1975~2012년 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동(수)	83,255	78,589	1,619	1,632	1,415
사업비	1조 4,986억원	1조 2,349억원	810억원	978억원	849억원

앞으로도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귀농·귀촌 가구, 다문화 가정 등에게 우선 주택개량 물량을 배정하여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을 통해 농촌지역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주택행정팀장 김태식, 담당자 장영태, 이중호

나.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

2014년 1월 주거급여법이 제정·공포되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시하던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소득, 가구원수, 주거 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시범사업(2014.7.~9월)을 거쳐 2015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추진배경으로는 민간 임차가구(특히, 전월세가구)의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개량 수선유지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제도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개편된 제도효과를 보면 기존 지원기준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3%이하였던 것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로 확대함으로써 대상가구수 확대 및 급여액 증가로 이어졌으며, 2015년에 임차가구(35천가구)와 수선유지급여가구(12천가구)중 수급자를 대상으로 22개 시군에 485억원을 지원하였다.

<표2-17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비고
15년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주거급여(중위소득 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주거급여 종류로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주택을 소유, 거주하는 자에게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표2-172>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350만원(3년)	650만원(5년)	950만원(7년)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창호 교체)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 공사)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택개량 등)

※ 보수범위별 수선 주기는 각 보수 범위내 1회 수선이 원칙

앞으로 주거급여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수급자 발굴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주택행정팀장 김태식, 담당자 윤 옥

다. 주택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

우리 도의 전체적인 주택보급률은 99.8%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과 고용창출 지원 등에 힘입어 도민 주거안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2-173> 주택보급률 추이

구 분	2009	2000	2011	2012	2013	2014
가구(수)	769,040	780,675	784,000	789,004	797,781	803,232
주택(호)	751,807	773,720	791,279	772,526	785,405	801,854
보급률(%)	99.51	99.52	101	97.9	99.5	99.8

앞으로 도민의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와 질적수준 향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2015년에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50명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및 자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9개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별 민간 전문가를 현장 공정에 맞게 구성하여 설계도서에 결함시정반영, 시공 시 주의사항 사전고지, 마감처리와 안전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시정조치 등 총 99건을 시정 및 개선조치 하였다.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향상 도모와 건전한 주택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 앞으로 품질검수단 운영은 상·하반기 시·군 신청을 받아 단지별 현장검수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용역, 공사의 사업자문과 단지 관리비 집행 실태 감사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건축사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공동주택 관리지원단도 2015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리비 컨설팅(관리비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 등)과 조사감사(관리비, 잠수입, 관리규약 준수 등)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공동주택 회계 등을 개선토록 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은 단지별 자문을 통해 입주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주택행정팀장 김태식, 담당자 장영태

라. 행복(한옥)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가 2006년부터 시작하였다.

편리하게 진화된 한옥주택을 건립하여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주민과 후손들이 마을을 유지하고, 도시민들이 돌아오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마을에 들어서는 ‘기존마을 정비형’과 새로 조성되는 택지에 들어서는 ‘신규단지 조성형’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지금까지 11개 마을과 1,878동의 한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1,288동을 완공하고, 590동은 추진중에 있다.

<표2-174> 연도별 행복마을 및 한옥건립 대상자 선정현황

구 분	합 계	2007	2008	2009	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마을수	111	5	12	23	22	20	9	11	8	1
가구수	1,878	145	215	331	336	289	166	182	204	10

2015년 11월까지 74개 마을에 약 2,912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되었으며, 62개의 기업, 학교 및 관공서와 자매결연을 맺고 워크숍 및 단체모임 등을 유치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옥민박, 특산품 판매, 체험 등 신규 소득창출로 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었고, 마을·사회적기업 참여, 소득유망작목재배 등으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및 농어민 자립역량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행복마을 사업은 ‘2012년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 행정자치부 주관 제11회 대한민국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는 등 미래의 ‘농어촌마을 발전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제2단계 도약을 위해 집단·규모화가 가능하고 주거·상업·문화·역사 등이 복합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운영 등을 통해 한옥의 보전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정 2대 브랜드 시책(가고 싶은 섬, 숲속의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행복마을을 선정하여 귀농·귀촌·귀어인의 빠른 정착 지원 및 한옥체험, 불거리, 즐길거리 등 새로운 소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행복마을팀장 김명신, 담당자 김선주

마.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국내 최초 ‘한옥’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로서 지속가능하고 매력 있는 한옥문화관광 명소화, 한옥산업분야 지역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제4회까지 박람회를 통해 한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였으며, 참여업체를 확대시킴으로써 내실 있는 박람회 개최 및 한옥의 산업화를 선도하여 왔다.

향후 힐링에 대한 관심증가로 한옥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남이 한옥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한옥 대중화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표2-175> 한옥건축박람회 추진실적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기간	‘200.10.26~10.31	‘2012.10.27~11.1	‘203.10.31~11.5.	2015.4.9.~4.12.
주제	천년의 유혹, 녹색의 감동	천년을 품은 지혜, 미래를 짓는 한옥	한옥의 현대화	한옥, 그 오래된 미래
주요 행사	7종, 34개 행사	6종, 17개 행사	7종, 27개 행사	5종, 17개 행사
방문객	약 92천명	약 75천명	약 102천명	약 200천명

추진부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행복마을팀장 김명신, 담당자 류정경

바.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 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지의 심각한 도시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2010~2015)」 과 별개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순천 등 6개 지역 52.73km구간에 133억원을 투입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다.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2010년 7월 8일 확정하였으며, 우리 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목포, 순천, 광양, 보성, 영암 등 도내 9개 지역 139km 구간에 대해 527억원이 투입하였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가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국토종주 자전거 도로, 일반 시가지 자전거도로 등 도내에 개설되어 있는 727개 노선, 1,109Km의 자전거도로를 유지·정비하여 자전거도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표2-176>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 km)

계(Total)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노선수	길 이	노선수	길 이	노선수	길 이	노선수	길 이	노선수	길 이
727	1,109	70	203	609	760	15	24	33	122

추진부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지역개발팀장 임병을, 담당자 박성우

사.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지원

성장촉진지역 개발지원 사업은 성장 촉진을 위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전국 70개 시·군, 전남 16개 시·군)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국비로 전액 지원하고,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조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표2-177> 성장촉진지역 현황

전남(16)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국토교통부의 성장촉진지역 개발지사업은 1996년 신안군, 완도군을 시작으로 2014년 나주시, 해남군까지 추진중으로 이사업을 통해 낙후 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에 제정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까지 추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낙후지역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감세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178>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 세제감면 내용

구 분	법인세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사업시행자 (1,000억원 이상)	3년간 50%	2년간 25%	면 제
창업/사업장 신설 (100억원 이상)	3년간 100%	2년간 50%	면 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제17항

향후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낙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지역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추진부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지역개발팀장 임병을, 담당자 강철홍

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확충

3-1. 도로망 구축

가. 도로 건설

서해안 고속도로는 2001년 말, 장성~담양간은 2006년에 완공하였고, 2007년에는 고창~장성간, 2008년에는 무안~광주간, 2011년 4월에는 전주~광양간을 개통하였다. 영암~순천간은 2012년 4월에, 광주~대구간 고속도로는 2015년 12월에 완전 개통하였다. 그리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2015년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도 4차로 개설사업은 국도 77호선 등 미개통 구간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원~삼포 등 국가지원 지방도 8개 지구와 유치~이양 등 지방도 4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군별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망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표2-179>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km, %)

구 분 도로별	2012		2013		2014	
	연 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계	10,289	74.0	10,533	78.7	10,553	78.9
고속도로	313	100	415	100	415	100
국 도	2,002	95.0	2,036	95.7	2,042	95.7
지 방 도	2,295	76.6	2,298	76.6	2,298	76.7
시 군 도	5,679	70.7	5,784	72.1	5,798	72.3

※ 2014년 12월 31일 기준

<표2-180> 도로건설사업 추진실적(2015년)

(단위 : km, 억원)

도 로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 구 수	연 장	
총	71	49.6	6,604
고속도로	1	-	100
일반국도	32	27.6	4,155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3	2.9	691
국가지원지방도	11	8.3	958
지방도	24	10.8	700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도로계획팀장 정종태, 담당자 서영배,
도로시설팀장 성치풍, 담당자 서한진

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89.25km) 건설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 남북 2축 노선 연결과 도내 중서부권과의 접근성 제고로 물류비용 절감 및 관광개발을 촉진하고자 1999년 12월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지자체·정치권이 공동으로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수요 등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주~해남 구간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국비예산 100억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해남간 69.55km 구간은 사업타당성이 없으나, 광주~강진간 51.75km 구간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구간 축소에 따른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었으나 사업

착수가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착수가 가능한 광주~강진간 51.75km를 착공하고, 강진~해남간 17.80km는 추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광주~강진구간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6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도로계획팀장 정종태, 담당자 서영배

다. 연륙·연도교 건설사업 조기 완공 및 착공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륙·연도교사업은 교통이 불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확충과 타 지역에서 섬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균형 발전은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도로망 조기 구축, 국도 77호선 연륙·연도교 사업의 조기 완공을 목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민선6기 이낙연도지사 공약사항인 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중앙부처·지자체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도지사공약 사항 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국비 1,64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조기착수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면제하여 주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앞으로 미착공 구간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도로계획팀장 정종태, 담당자 김보형

라. 국도 확·포장 및 우회도로 건설

국도 확포장 및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2지구에 13조 9,742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9조 9,418억원을 투입하여 127개 지구를 추진하였으며, 그 중 88개 지구를 준공하였다.

2015년에는 4,846억원을 투입하여 신안 압해~암태간 국도 2호선 등 29개 지구를 추진하여 돌산~화태간 등 4개 지구를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도서지역과 해안의 접근성 향상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도 77호선인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도로계획팀장 정종태, 담당자 김보형

마.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2026년까지 총 39개 지구에 3조 5,57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국비부담, 보상비는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까지 23개 지구에 1조 5,292억원을 투입하여 13개 지구를 준공하였고, 10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15년에는 11개 지구에 958억원을 투자하여 앵남~화순, 송현~남평 등 2개 지구를 준공하였으며, 화양~나진 등 8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광양 중군~진상간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10개 지구 1,204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사비와 보상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도로계획팀장 정종태, 담당자 김보형

바. 지방도 정비

도로망 연결체계를 구축하여 농수산물과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부터 도내 38개 노선, 1,961km, 7조 9,6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방도 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2011년까지는 매년 평균 300~400억원의 양여금이 지원되었으나, 2012년 이후 양여금이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축소되어 매년 평균 700억원 정도의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대규모 신규지구 사업 착수는 지양하는 한편, 계속 사업의 조기 완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위험구간 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2016년부터는 전체 사업예산의 10% 정도인 70억원을 도로·교통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추가 투자하여 마을 앞 보행자도로 확충과 갓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2-181>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실적(2015년)

(단위 : km, 억원)

도 로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 구 수	연 장	
지방도	24	10.8	700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도로시설팀장 성지풍, 담당자 서한진

3-2. 철도망 구축

가.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목포간) 건설

서울~목포간 352km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양축을 형성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부고속철도의 사업계획이 경제현실에 맞게 재조정됨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도 1999년말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작업을 마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추가 반영되었다.

2003년 11월까지 5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2004년 10월 중부권 분기역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을 시행하여 2005년 6월 중부권 분기역을 오송역으로 확정하였고, 2006년 8월 기본계획 고시, 2008년 11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I 단계 구간인 오송~광주송정 구간은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5년 2월 준공하였다.

II 단계 구간인 광주송정~목포 구간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기본계획이 2012년 8월 변경 고시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2014년 9월 나주,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무안공항을 지선으로만 연결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한 결과 2015년 7월 부처간 노선에 대한 이견이 없는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우선 추진하고 고막원~목포 구간은 지속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2015년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공사는 2016년말 착공하여 201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고막원~목포 구간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나. 남해안철도(보성~목포) 건설

보성~목포간 남해안철도 건설은 목포권과 광양만권을 연계하는 철도망 구축과 동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1998년 12월 확정된 국가 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어, 2000년도에 기본계획(용역비 40억원)이 완료되고 경제성(B/C 1.04)이 인정되어 2003년 12월 2개 공구 17.6km가 터키공사로 착공되었으나, 2007년 국토교통부의 준공사업 우선 추진 방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다.

2009년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을 재조사를 하여 당초 복선전제 단선에서 단선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던 2개 공구는 2015년 2월 공사가 재개 되었으며 나머지 5개 공구도 2015년 11월 착공하게 되었다.

2015년 전체구간이 착공된 보성~목포 간철도 건설사업은 목포와 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철도 구간으로 동서화합은 물론 남해안 권역 동반성장 및 동북아경제권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하며 목포에서 부산까지 열차로 이동할 경우 현재는 7시간 이상 걸리지만 준공될 경우 3시간 10분으로 단축되어 본격적인 남해안 시대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철도공항팀장 박종환, 담당자 염승열

3-3.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흑산공항 건설

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불·삼호산단의 활성화와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국내·외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광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호남권의 중심거점 공항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1998년 10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1998년 12월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여 실시하는 턴키방식을 채택, 1998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11월에 준공과 함께 개항되었다.

항공이용객 편의를 위해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개소와 면세점, 환전소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항공사 손실보상금 지원, 정기노선 추가확보 등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은 2015년 12월말 기준 이용객이 312천명으로 늘어나 개항 이래 최대성적을 거두었다.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철도공항팀장 박종환, 담당자 임한구

나. 흑산공항 건설

중국, 일본, 김포공항 등과 연계한 동북아 해양관광의 관문 역할 수행과 영토주권 수호 및 오지낙도의 비상 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2011년 1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2013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B/C 4.38)를 거쳐 건설계획이 확정된 후 기본계획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2015년 12월 18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흑산공항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이며, 공항부지는 683천㎡이고, 활주로는 L=1.2km, B=30m으로 사업비는 1,835억원이다. 201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20년 개항할 예정이다.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철도공항팀장 박종환, 담당자 임한구

3-4.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 실현

가.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영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고 생필품 구입을 위해 시장에 가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없는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실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100원 택시는 민선6기 도지사 핵심 공약사항으로 6.4 지방선거 최고 공약으로 선정되어 주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014년 보성군과 화순군이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15년에는 순천시 등 14개 시·군(362개 마을, 수혜자 11,076명)에서 ‘100원 택시’를 운행하였다. 2016년에는 여수시 등 19개 시·군(645개 마을, 수혜자 19,900명)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말까지 389,963여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하여 하루 평균 1,45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목적은 분석해 보면, 병원 144,286명(37%), 시장 140,386명(36%), 친인척 방문 16,768명(4.3%), 기타 88,523명(22.7%) 등 실생활에 필요한 장소를 이동하는데 ‘100원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통오지마을 주민이 ‘100원 택시’를 이용해 읍·면 소재지 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합승을 통해 마을 주민들끼리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등 산간 오지마을의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였다.

‘100원 택시’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정해진 구간을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하면 도와 시·군비로 차액을 사후에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대중교통팀장 박남일, 담당자 정정철

나. 버스 (준)공영제 도입

버스 이용객 감소 및 버스업체 경영 악화로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익 노선 운행기피, 결행, 불친절 등 이용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1단계로 곡성군, 보성군, 영암군, 완도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곡성군·영암군은 ‘단일요금제’, 보성군 ‘준공영제’, 완도군 ‘부분공영제’ 추진을 채택하였다.

나주시, 장성군, 진도군 등 3개 시군은 2단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 10월 완료할 예정이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버스업체와 보상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 (신안군의 경우 7년 소요)과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대중교통팀장 박남일, 담당자 정정철

다.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버스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 현재 위치, 운행 정보, 도착 예정시간을 버스정류장 안내기,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도에는 국토교통부 광역 BIS 구축 공모사업에 목포~영암~무안~신안권(109km)과 광주~함평권(65km)이 선정되어, 국비 591백만원을

지원받는 등 총 1,81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BIS센터 구축, 정류장 안내기(BIT, 65식), 차량단말기(OBE, 122식)설치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완료시 지역주민들과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버스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교통기획팀장 윤연화, 담당자 진미선

라. 교통안전문화개선 추진

우리 도내 교통사고 발생은 지난해 10,177건, 사망자는 427명으로 사고원인은 대부분 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특히 사망자의 특성을 보면 노인(65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45%인 192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음주에 의한 사망자 수도 인구 10만명 당 3.1명으로 전국평균 1.2명에 비해 약 3배가 높으며, 화물차, 이륜차 사고도 높은 편이다. 특히 농기계에 의한 사망자는 24명으로 전국의 32%를 차지한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도로와 도로안전 시설 개선사업 68개소 296억원, 노인보호구역 및 생활도로 정비사업 42개소 27억원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였다.

또한, 우리 도와 전남경찰청·교육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T/F팀을 구성·운영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전남교통연수원을 활용하여 운수종사자·어린이·노인 등 4만 3천명에 대한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이 일상생활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남 교통안전 대토론회, 범도민 전진대회, 각종 세미나를 통한 홍보와 TV·라디오 언론매체를 활용한 기획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도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터미널,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른 성과로 2015년 교통문화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도 단위 8위로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앞으로 2016년 6위, 2017년 5위, 2018년 3위를 목표로 교통안전문화 개선대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교통안전팀장 서상선, 담당자 박병수

3-5. 교통인프라 확충 및 도로 유지관리

가.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운송원가 상승 및 이용객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영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도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2015년도에는 도에서 관할하는 시외버스 6개 업체에 9,319백만원,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22개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46개 업체에 18,504백만원 등 총 27,82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5년도부터는 기존 규모 위주의 획일적인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적자노선 손실액을 일부 반영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을 변경하였다. 또한, 버스 재정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비 245백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Bus Cost & analysis System)」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버스 운송사업자는 매월 차량관리, 수입, 지출 등 경영현황을 전자 신고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매년 버스업계의 경영수지 분석 및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해 전자신고 진위여부, 수입금 누락, 보조금 집행내역을 철저히 검증하여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지·도서·벽지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상금 893백만원 및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38대 564백만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10대와 장애인콜택시 14대 구입비로 1,57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교통기획팀장 윤연화, 담당자 진미선

나.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우리나라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4,762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10.8명이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특히, 보행 중 사망자 수가 10만명 당 4.1명으로 OECD 평균의 4배 수준이다.

우리 도의 경우 2014년 보행 중 사망자는 13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1%에 해당된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에 대한 속도관리 소홀과 차량 통행 위주의 주정차 관리,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은 도로환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도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2015년도에는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사업비를 활용하여 총 33개소를 대상으로 생활도로 정비 및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2-182>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현황		사업기간
	개소 수	사업비	
총	78	14,95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	342	2014~2015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5	1,400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8	2,442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	9,700	"
생활도로,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31	1,070	"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교통안전팀장 서상선, 담당자 송형근

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수행과 깨끗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1년 1월에 목포 화물공영차고지 건립(4,115㎡, 화물차 77대)을 시작으로 강진군 성전면에 110억원(국비 33억, 지방비 77억)을 투자하여 2,0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순천시 서면·여수시 주삼동에 민간투자방식으로 SK에너지(주)와 함께 사업비 449억원(국비98, 지방비129, 민자 222억)을 투자하여 총 74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주유소, 경정비소, 편의동 등 화물공영차고지를 건립하여 2015년말 기준 90%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2015년 12월말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업단지 내에 사업비 164억(국비 147, 지방비 17), 면적 33,058㎡, 총 주차대수 215대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건립하였으며, 나주시 청동 일원에 면적 58,136㎡, 총 주차대수 315대 규모로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다.

이처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화물 운송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복지향상과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에 노출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교통기획팀장 윤연화, 담당자 이동미

라. 건설기계 관리

도내 발주공사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를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비 임대료 체불 방지 등 건설기계 사업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표2-183>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30,912	174	11,601	1,493	11,279	3,221	594
모터 그레이더	로울러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	아스팔트휘니셔	아스팔트살포기
24	305	1,288	278	107	30	4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노면파쇄기	준설선	기타 건설기계
24	158	283	21	4	12	12

<표2-184>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현황

(단위 : 업체)

계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 정비업	건설기계 매매업	건설기계 폐기업
	소계	일반	개별			
842	608	368	240	137	60	37



도로교통과장 최봉현, 교통안전팀장 서상선, 담당자 김 선

마. 지방도 및 위임국도 유지관리

선형이 안 좋은 급커브 도로나 도로구조 기준에 미달된 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 도로 45개선 2,298km와 교량 419개교 및 터널 5개소에 대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차로 개선, 중앙분리대,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 2015년도까지 2,656억원을 투입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형개량 등 구조개선사업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국도의 30%인 9개 노선 600km와 교량 96개교 및 터널 5개소를 위임받아 15년도까지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등 1,236억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하고 있다.

추진부

도로관리사업소장 고덕일, 보수팀장 최순철, 담당자 나형철, 배경석, 강문수, 포장팀장 고탁, 담당자 이철우, 정현우, 교량팀장 조준호, 담당자 정성문

바.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도로 포장면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의 단속을 위해 3개반 15명으로 과적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분기 민·관 합동으로 과적근절 캠페인도 실시하여 ‘과적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2015년도에 7,870대 검차를 실시하여 63대를 적발함으로써 과태료 31,04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남평검문소 신설에 따른 미운영으로 검차가 감소했으나 2016년 7월부터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표2-185> 연도별 과적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건/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검차/적발	171,359/86	10,371/43	7,870/63	
과태료 부과	47,280	35,005	31,040	

추진부

도로관리사업소장 고덕일, 장비팀장 노주완, 담당자 오연길

4. 열린 토지행정 구현

4-1. 정확한 지적관리로 도민 재산권 보호

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열람 제공

지가공시제도는 토지의 공적인 가격을 조사 공시함으로써 각종 토지정책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거래 시 건전한 가격형성의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과세 및 부담금 부과 등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과거의 지가체계는 국토교통부(구 건설부)의 기준지가, 안전행정부(구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기획재정부(구 재무부)의 감정시가 등 소관주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다원화된 지가체계였다.

이와 같이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하여 조사·평가됨에 따라 조사 인력 및 재정의 낭비는 물론, 상호 연계성 결여로 인한 혼란과 불신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어 공적 지가에 대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원화된 공적지가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 위해 1989년 4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필지별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된 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41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였다. 이는 비과세 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도 전체토지의 77%에 해당한다.

인접 시·군간 개별공시지 불균형으로 인한 과세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간 연석회의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 운영, 도로 등 공공용토지 개별지가 산정 등 전라남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도시개발지역과 실거래가 상승 또는 하락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지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합리적인 지가조사 및 결정에 만전을 다하였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라남도 누리집 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하여 상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진부

토지관리과장 박종석, 토지관리팀장 박병춘, 담당자 김진형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

기업도시, 특성화산단 등 대규모 국·도정 사업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기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시 토지의 개발·이용 계획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수요자 거래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처리하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 조치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한편 토지의 위장 증여·전매와 같은 불법적 거래를 금지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부응코자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 구역을 해제(또는 축소)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는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 활성화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말 7개 시·군, 14개 지역, 21.28km²(도 면적의 0.17%)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1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지정 허가구역은 2008년 1월 20,060.6km²(전 국토의 20%)의 약 1/40 수준인 472km²(전 국토의 0.5%)로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

<표2-186>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지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를 초과하는 토지
	임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

<표2-187> 전라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2015. 12. 31. 기준)

지역	면적(km ²)	지정기간	지정사유	비고(지정자)
합계	21.28	도 전체면적(12,309)의 0.17%	7개 시군, 14개 지역	
목포시	0.38	2014.12.3.~2017.12.2.(3년)	목포 서산, 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도지사
여수시	0.27	2014.1.10.~2019.1.9.(5년)	만흥동 검은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	도지사

지역		면적 (km ²)	지정기간	지정사유	비고 (지정자)
여주시	남면 연도리 산609(간여암)	1,905 (m ²)	2014.12.26.~ 해제시 까지	영해기점 무인도서	국교부장 관
여주시	봉전면 일원	0.59	2015.10.1.~ 2020.9.30(5년)	울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	도지사
여주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1.12	2015.12.24.~ 2020.12.23(5년)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지사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신대리	1.07	2014.9.5.~ 2017.9.4(3년)	선월하이파크	광양경 제청장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0.64	2015.9.5.~ 2016.9.4(1년)	해룡산단 확장부지	광양경 제청장
광양시	황길동, 도이동 일원	0.75	2014.9.5.~ 2017.9.4(3년)	성황국제비즈니스	광양경 제청장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1.11	2014.9.5.~ 2017.9.4(3년)	웰빙카운티	광양경 제청장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4.43	2014.9.5.~ 2017.9.4(3년)	광양복합업무단지	광양경 제청장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	7.78	2014.10.30.~ 2017.10.29(3년)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도지사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1.15	2014.6.18.~ 2017.6.17(3년)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조성	도지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98	2014.6.18.~ 2017.6.17(3년)	도양일반산단 조성	도지사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3 (소국홀도)	4,760 (m ²)	2014.12.26.~ 해제시 까지	영해기점 무인도서	국교부 장 관

추진부

토지관리과장 박종석, 토지관리 팀장 박병춘, 담당자 김영국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리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만 있었을 뿐, 부동산개발로 인한 관리제도가 없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가 난립하여 무질서한 부동산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육성 및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표2-188>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면적)
연면적3천㎡ (연간5천㎡)이상	3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5천㎡(연간1만㎡) 이상

<표2-189>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시 설		실제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면 가능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는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붙여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조회와 사무실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도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기재사항 변경신청, 사업실적 신고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http://klis.jeonnam.go.kr/>)

<표2-190> 전라남도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

(2015. 12. 기준)

구 분	합 계	신규	폐업, 이전, 취소	비 고
업체수	35	75	40	

추진부

토지관리과장 박종석, 토지관리팀장 박병춘, 담당자 김 옥

라. 정확한 토지등록 관리

도내 모든 토지마다 그 위치·형태·종류 및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物權)이 미치는 한계를 밝혀 공시(公示)함으로써 도민의 소유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모든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필지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경계·면적을 정하며,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다.

토지의 정확한 등록을 위해서 도내에 설치한 지적기준점 80,977 점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관련 택지개발, 경지정리, 산단조성 등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44개 지구 2,228ha의 지적확정측량을 정확히 검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토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토지의 경계를 수작업에 의하여 등록공시하였으나 현재는 수치화된 경계를 좌표에 의거 등록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로부터 신청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274천필지를 정확히 등록함과 아울러 등기까지 대신 처리해 줌으로써 도민들의 재산관리 편의를 폭넓게 제공하였다.

추진부

토지관리과장 박종석, 지적팀장 유영수, 담당자 김창일

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정보는 토지의 위치, 형태, 이용, 지번, 경계, 면적, 사용목적, 건축물 등 땅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으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기초 자료이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도의 문제점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되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변형·마모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한민국 전 국토의 15%가량이(전남도 14%)지적도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3,800억원,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치 역시 일본 측량원점인 동경 원점을 사용해 세계 표준원점과 약 365m나 차이가 나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히 등록하여 세계표준원점에 맞춰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확한 지적도 구축을 위하여 가로·세로·높이 1mm단위까지 정밀하게 측량하는 우리의 첨단 기술로 토지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오차없는 디지털 지적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IT기술과 접목하고, 3D입체 지적정보 제공으로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이다.

우리 도에서는 2030년도까지 지적불부합지 821천필지에 대하여 국비 1천8백억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 광양시,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5개 시군에서 사업비(국비) 3억원으로 5개 지구, 2,133필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13년도에는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신안군 14개 시군에서 사업비(국비) 22억원으로 26개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14년에는 여수시, 순천시,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6개 시·군 7개 지구, 5,061필지에 8억원을 투자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13개 시·군, 15개 지구에 사업비(국비) 16억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경계를 확정 중에 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17개 시도 평가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표창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결과 “가”등급의 영예도 얻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필지 단위의 지표·지상·지하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토지이용이 편리해 질 뿐 아니라, 맹지는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 신·증축을 할 수 있어 토지활용도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로 제작된 지적정보를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추진부

토지관리과장 박종석, 지적팀장 유영수, 담당자 박원선

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토지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국토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토지 정보 수요기관의 각종 토지정책 수립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적, 주민 자료, 공시지가자료 등을 연계 통합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주민편의 위주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정보센터는 2009년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직제 개편되어 국가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정보 조회, 정책정보제공, 공공사업 보상업무지원, 스마트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공개 API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도내 토지정보 12,312km² 5,729천 필지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발생된 토지변동과 소유권이전, 보존등기 등으로 발생한 소유권변동 등 총 600천여 필지의 변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한해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28,202명에 대한 토지정보를 검색하여 38,846필지를 제공함은 물론, 생계유지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 각종 세금 체납자, 벌금·과징금 부과자 등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 소유현황 자료 3,762명의 자료를 검색하여 20,520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조상 땅을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62명이 신청하고 134필지의 땅을 찾아 줌으로써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2월 1일부터는 시·군에서도 조상 땅 찾아주기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가까운 시·군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추진부

토지관리과장 박종석, 지적팀장 유영수, 담당자 조은진

사. 측량업등록 관리

측량업이라 함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을 말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4년 7월 21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1개 측량업종 중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은 시·도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측량업의 업무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 조사, 설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측량과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과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 측량관련 도면의 작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일반측량의 범위는 공공측량의 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을 말한다. 전남도 내 측량업등록은 총 19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표2-191> 전라남도 측량업 등록현황

구분	합 계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업	비 고
업체수	198	73	110	15	

측량업의 등록절차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측량기술자의 이중등록 여부, 장비 및 기술능력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사무소 위치 유무,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조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에 위법성이 없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추진부

토지관리과장 박종석, 지적팀장 유영수, 담당자 조은진

4-2. 디지털 지적 및 공간정보 구축·활용

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서비스 강화

토지행정의 효율화 및 합리적인 토지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이용하여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토지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안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지가, 개별주택가격,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부동산중개업 정보 등 14종의 단위업무 토지정보를 안방에서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민원서비스 이용실적 분석결과 토지이용계획 열람 1,407천건, 개별공시지가 978천건으로 제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토지이용에 따른 토지정보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고 갈수록 이용자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양질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반 시스템과 연계한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이용하여 개별필지의 공시가격, 아파트 실거래가 등 가격정보와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정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의 각종 토지와 관련되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제공하고 있다.

추진부

토지관리과장 박종석, 공간정보팀장 김옥남, 담당자 윤가연

나. 공간정보화 사업

공간정보는 실제사물의 위치정보에 속성정보를 덧입힌 융·복합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등 첨단기술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실생활 속에 또 다른 가상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공간정보화 사업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와 속성정보들을 컴퓨터와 같은 정보매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요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도정시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간정보에 대한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 5월 18일 GIS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지리정보담당을 설치하고 2005년 12월 “전라남도 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매년 중앙부처와 타 시도 및 국토지리정보원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2007년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해왔다. 또한 도내 공간정보화사업에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첨단 공간정보기술에 관한 학술 발표와 정보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체계 공동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각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및 중앙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 보다 완벽한 공간정보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다양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여수세계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대불산단, 그리고 서남해안 일대가 투자의 적지로 떠오르는 등 전남의 성장잠재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활발한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항공영상공간정보시스템 구축(2004년~2006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섬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개발 구축하고 통합 항공영상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우리 도내 섬들의 관광 자원화와 휴양레저 투자유치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행정내부뿐만 아니라 남도의 관광명소, 여행지 등 항공영상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전국에 알리고 여행 방문객들이 서로 여행후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 방식의 공간정보 참여마당 시스템(2006년)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자체 개발한 투자유치 지원시스템을 선보였으며, 2010년에는 투자정보브리핑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고 2011~2012년에는 고도화 구축을 통해 한층 더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유치활동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투자유치지원시스템은 투자적지에 대한 각종 고시사항, 환경규제 사항, 토지현황, SOC인접성 및 입지정보, 건물 및 시설물정보, 도시계획 등 관련 시스템들과 연계하여 종합 입지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평면상의 현황정보 이외에도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활용한 3차원의 분석기능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이며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모든 공간정보들을 통합 연계한 국가공간정보통합 체계시스템과 연동되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될 전망이다.

또한 2015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무인항공기를 도입하여 택지 등 주요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최신 항공영상을 촬영하여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효율 증대 및 대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구축 공간정보시스템 이외에도 중앙과 연계하여 인터넷 토지민원 조회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2006년), 모든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쉽게 활용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통합 체계(2010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개발계획상 입지를 분석검증

하기 위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2009년) 등을 연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GIS를 기반으로 구축한 각종 시스템은 대규모 개발 입후보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등 효과적인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간척지 또는 해변가의 미등록 토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광지 접근경로의 3차원 입체검색과 기타 도로, 산림, 재난재해 위기관리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획기적이고 다양한 분야로 발전이 가능하다.

공간정보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시, 농업, 산림, 해양, 환경 등 여러 분야의 흩어진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누구나 찾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시·군별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구축되는 대량의 자료, 공간 빅데이터는 기존의 분석도구나 분류체계로 관리될 수 없고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통해 특정 공간위치상 사람들의 평균 소득수준, 수돗물이나 전기사용량, 소비성향 등을 토대로 유망한 창업업종, 필요한 생활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창출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2012년 세계 최초로 국가통계 산업분류에서 에너지, 로봇, 스포츠, 콘텐츠 등과 같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심을 위한 특수산업으로 등록되었으며, 2012년 국내 시장규모는 4.8조원 수준이나 2016년에는 15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2천억원 직접투자를 통해 1.2만명의 고용창출(총 1조원 직·간접 투자 통해 4.6만명 고용창출)할 계획으로 앞으로 미래 블루오션 산업으로 자리매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꾸준한 관심과 실생활에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부

토지관리과장 박종석, 공간정보팀장 김옥남, 담당자 이용민

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

정부에서는 1994년 12월과 1995년 4월 연이어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7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에 대한 위치정보를 공간정보 DB화하여 통합 관리하기로 하고 우선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1997년 여수시를 시범지역으로 시작하여 2015년까지 4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3개 시군의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을 현장 조사·탐사하여 위치 및 속성 정보를 전산화하였고, 앞으로 구례군, 장성군 등 10개 군 지역까지 사업을 확산하여 2020년까지 1,905억원을 투입 23,018km의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할 계획이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도로상의 시설물과 상·하수도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하매설물 설치시 가스관 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재해발생시 주변지역의 상수도·하수도·통신·전기·가스·난방·송유의 위험시설물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하시설물 자료를 공동 활용함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도와 같이 열악한 지자체는 예산부족과 중앙부처의 예산확보 부족 등으로 전 시·군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토지관리과장 박종석, 공간정보팀장 김옥남, 담당자 이용민

라.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1) 정의 및 도입배경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한다.

현행 주소체계는 1918년 일제강점기에 도입하여 약100년간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주소로 집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편배달, 방문 등 도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고, 범죄·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OECD 34개국 중 32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착수하였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2001년도에 목포·광양시를 시범지역으로 시작하여 2007년도에는 전 시·군이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도는 도로구간 13천개소에 대해 도로명판 23천개, 건물번호판 513천개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예비안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만·불편사항 등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다.

2011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방문고지, 서면고지, 공시송달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29일자로 전국 동시 고시를 마침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가 되었다.

2011년 하반기에는 각종 계약이나 거래 등 법률관계 설정에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등록이나 인감 등 1,095종에 이르는 방대한 공적장부의 표기를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완료하였다.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 시행되어 민간부문 활성화를 강화하고자 운수업자, 건축사, 소외계층 등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 결과 도로명주소로 정착되었다.

도로명주소 법적 의무사용으로 도민의 주소생활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체국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우편 집배원을 도우미로 지정하여 농촌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1대 1대 눈높이 홍보 등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도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우편홍보물을 발송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공공 및 민간부문 대상별 눈높이 홍보를 추진하고자 공공 부문에서는 교육과 연계하여 도로명주소 바르게 읽고 쓰기 실천운동 확산에 노력을 기하였고, 민간부문에서는 전통시장, 지역축제장, 거리 캠페인 등 대민 접점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각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홍보의 영역을 확대하여 점자형 도로명주소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약 100년간 지번 주소체계를 사용한 도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는 낯설고 생소하여 생활 속에 스며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신용카드, 통신, 우편 등 주소사용이 빈번한 민간분야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도로명주소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다.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진통이 따르겠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위치탐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구조구급 등 각종 응급서비스가 대폭 향상되고 물류비용 절감과 위치정보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은 단순히 지번주소의 문제점 해결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인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추진부

토지관리과장 박종석, 공간정보팀장 김옥남, 담당자 김수현